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66128)**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1577-1640)
4.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2013년 7월 16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년 7월 19일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1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 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1. 투자목적.....	4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4
3. 수익구조.....	5
4. 주요 투자위험.....	5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7
6. 운용전문인력	7
7. 투자실적 추이.....	7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8
1. 수수료 및 보수	8
2. 과세.....	10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2
III 요약 재무정보	13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미국의 상장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목표지수와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할 것을 추구합니다.(보수차감전, 세전 수익률 기준)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text{추적오차율} = \text{표준편차}(\text{과거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 - \text{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 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환산하여 산출함.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산출기관 및 대상지역 : 다우존스(Dow Jones)社, 미국

- (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등의 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 (2) 미국산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지수로 The Wall Street Journal 편집자들에 의해 선정됨 (비교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djindexes.com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구 분	세부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통화선물거래 등을 통해 미국시장에 대한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방법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을 사용합니다.
목표 헤지비율	외화자산 대비 90% 이상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이나,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투자신탁의

	<p>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p>
환헤지 장점	<p>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p> <p>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p>
환헤지 단점	<p>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p> <p>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p> <p>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p>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p>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p> <p>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거래를 수행하게 되는데, 선물환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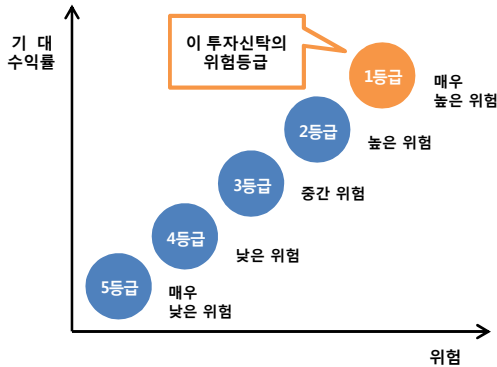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

	<p>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p>주식가격 변동위험</p>	<p>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p>
<p>환율변동 위험 (환헤지를 수행함에 따른 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경감을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의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헤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p>
<p>국가 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p>	<p>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p>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 수준을 감내할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13.06.30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김철민	1975	팀장	31개	2,752억원	현대증권 IT본부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 (현)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해당사항 없음 개수: 해당사항 없음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금융공학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연도 기간	최근1년차 12.03.09~'13.03.08	최근2년차 11.03.09~'12.03.08	최근3년차 10.03.09~'11.03.08	최근4년차 09.03.09~'10.03.08	최근5년차 08.03.09~'09.03.08
투자신탁전체	14.78	12.26	17.89	56.01	-49.74
종류 A	13.34	10.81	16.38	54.12	-50.44
종류 C-I	14.09	11.55	17.17	55.11	-
비교지수	11.62	6.18	14.42	59.44	-44.96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비교지수는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ndex”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중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 종류 A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납입금액의 1.0%	매입시 선취수수료 부과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이상: 없음	-
전환수수료	-	-

② 종류 A-e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납입금액의 0.5%	매입시 선취수수료 부과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이상: 없음	-

③ 종류 C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	-

④ 종류 C-e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	-

⑤ 종류 C2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	------	------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	-

⑥ 종류 C-I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	-

⑦ 종류 C-P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총 보수 비용 주2)	합성 총 보수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주1)			
A	0.50	0.70	0.06	0.02	0.09	1.37	1.37	
A-e	0.50	0.35	0.06	0.02	0.09	1.02	1.02	
C	0.50	1.00	0.06	0.02	0.09	1.67	1.67	
C-e	0.50	0.50	0.06	0.02	0.09	1.17	1.17	
C2	0.50	0.50	0.06	0.02	0.09	1.17	1.17	
C-I	0.50	0.03	0.06	0.02	0.09	0.70	0.70	
C-P	0.50	0.96	0.06	0.02	0.09	1.63	1.63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 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

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12,611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9	532	846	1,7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9	532	846	1,733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375	613	1,2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4	375	613	1,296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1	533	920	2,00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	533	920	2,002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0	375	650	1,4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0	375	650	1,434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0	375	650	1,4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0	375	650	1,434
종류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225	392	87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2	225	392	875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7	521	898	1,9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7	521	898	1,958

위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이하 “납입증명서” 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

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〇〇시 〇〇분 ~ 〇〇시 〇〇분) 중 판매회사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D)로부터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5영업일 (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 목	6기 ('13.03.08)	5기 ('12.03.08)	4기 ('11.03.08)
운용자산	10,233	5,249	6,444
증권	9,772	5,144	5,82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60	104	619
기타운용자산	100	0	0
기타자산	-40	84	66
자산총계	10,192	5,334	6,51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262	470	583
부채총계	1,262	470	583
원본	8,929	4,884	6,271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0	-20	-343
자본총계	8,929	4,863	5,928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6기 ('12.03.09~'13.03.08)	5기 ('11.03.09~'12.03.08)	4기 ('10.03.09~'11.03.08)
운용수익	1,157	695	572
이자수익	7	4	2
배당수익	156	138	77
매매/평가차익(손)	993	550	491
기타수익	0	2	0
운용비용	54	53	34
관련회사보수	45	47	29
매매수수료	3	2	2
기타비용	5	4	3
당기순이익	1,102	641	538

[Disclaimer]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is a product of Dow Jones Indexes, a licensed trademark of CME Group Index Services LLC ("CME"),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Dow Jones[®]",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DJIASM" and "Dow Jones Indexes" are service marks of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Dow Jones") [and have been licensed to CME] and have been [sub]licensed for use for certain purposes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have no relationship to the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other than the licensing of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and their respective service marks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do not:

- Sponsor, endorse, sell or promote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Recommend that any person invest in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Hav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or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timing, amount or pricing of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Hav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management or marketing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Consider the needs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or the owners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in determining, composing or calculating the DJIA or have any obligation to do so.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CME Group Inc. and its affiliates may independently issue and/or sponsor financial products unrelated to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currently being issued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but which may be similar to and competitive with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In addition, CME Group Inc. and its affiliates actively trade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the DJIA. It is possible that this trading activity will affect the value of the DJIA and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will not have any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MiraeAsset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Specifically,

-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do not make any warranty, express or implied, and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disclaim any warranty about:
 - The results to be obtained by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the owner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or any other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DJIA and the data included in the DJIA;
 -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DJIA or its data;
 - The merchantability and the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use of the DJIA or its data;
- Dow Jones, CME and/or their respective affiliates will have no liability for any errors, omissions or interruptions in the DJIA or its data;
- Under no circumstances will Dow Jones, CME and/or their respective affiliates be liable for any lost profits or indirect, punitive,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they know that they might occur.

The licensing relating to the use of the indexes and trademarks referred to above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is solely for the benefit of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and not for any other third parties.

[알림]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은 Dow Jones Indexes의 상표이자, CME Group Index Services LLC("CME")의 등록상표로,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Dow Jones[®]",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DJIASM" 와 "Dow Jones Indexes"는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Dow Jones")[CME에게 라이선스 허가]의 서비스 상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사용을 (재)허가합니다.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와 관련하여 Dow Jones Industrial Average(DJIA)와 각각의 서비스상표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외에는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를 보증, 추천, 판매 또는 판매촉진
-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에 투자할 것을 추천
-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에 대한 시기, 금액 또는 가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릴 또는 내리진 결정 대한 책임이나 의무 부담
-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관리, 운용 또는 마케팅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부담
- Dow Jones Industrial Average(DJIA)을 결정, 구성 또는 계산하는데 있어,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자나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를 고려하거나, 고려해야 할 의무 부담
- 위에도 불구하고 CME Group Inc와 그 계열회사들은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사가 설정하는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과 무관하지만, 유사한 상품으로서 경쟁관계인 금융상품을 독립적으로 발행 또는 후원할 있음. 더 나가 CME Group Inc.와 그 계열회사들은 DJIA의 성과와 연관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활동이 DJIA와 미래에셋 US블루칩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특별히,

■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다음과 관련하여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 미래에셋 US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또는 DJIA나 이 지수에 포함된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획득할 결과물;
- DJIA나 이 지수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 DJIA나 이 지수 데이터의 특정목적 또는 사용에 있어서 시장성과 적합성;

■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DJIA나 이 지수 데이터의 어떠한 오류, 누락 또는 중단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이익의 감소 또는 간접적, 징벌적,, 특정한 또는 결과적 손해 및 손실에 대해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이 이런 사실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수들과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오로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제 3자의 수익과는 무관합니다.